

“지방정부의 역량 팽혜해선 안 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잼버리 사태로 인한 지방자치 무능론에... 지방정부 역량강화 노력 강조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2023 새만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사태로 계기로 불거진 지방자치 무능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정부 경영모델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최근 세계 잼버리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번 사태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팽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1 대구 세계유산선승권 대회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례를 들며 “지방의 역량으로 이뤄낸 성공적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중앙·지방과 협력해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에 개최 예정인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 맞춰 5년 단위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의 세부 사항은 오는 10월30일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공개한다.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의지는 보여 주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특징 탓에 한계 또한 갖고 있었고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 창출에는 미흡했다”며

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종합계획은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들과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공약까지 담아 재정 개혁까지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 개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기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은 지역 서열화와 입시경쟁 유발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제외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교육자유특구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자유특구 설립에 관한 운영방안’ 연구를 토대로 하반기 특별법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하고 동시에 교육부 소관의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을 주도한다.

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전북 대표 문화유산 자리매김”

장수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 성료

장수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가 30일 오전 10시 침령산성이 위치한 사곡마을 문화센터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수 침령산성은 전북 동부를 대표하는 산성으로 삼국시대 가야, 백제, 신라의 각축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2020년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후 3년 만인 지난 8월 2일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글씨가 새겨진 나뭇조각(목간)과 철제 열쇠, 다량의 토기와 목제품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대형의 우물지 3개소, 대형건물지(30m 이상)가 확인되어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호

남과 영남을 잇는 주요 고갯길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문화재청과 전북도, 장수군이 함께 했으며 장수 군민을 비롯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전북도지사 표창과 장수군수 표창과 감사패를 통해 침령산성 학술조사단과 담당공무원, 사곡마을 이장계 감사를 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국가 사적 지정을 계기로 향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침령산성이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장수=고판호기자

한·중·일 3개국, 환경분야 우호 협력 증진 ‘한자리에’

도, 한중일 환경교류 행사 개최 자매결연도시 중국 장쑤성 일본 이시카와현 관계자 참석



전북도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장쑤성 일본 이시카와현은 지난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전북지역 일원에서 환경분야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제14회 한중일 환경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 4일간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장쑤성, 일본 이시카와현과의 환경분야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제14회 한중일 환경교류 행사를 전북도내 일원에서 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한중일 국제 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04년부터 일본에서 시작하여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매년 순회 개최되다가,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행사가 중단됐으나, 올해 4년 만에 재개돼 전북에서 3개국의 환경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각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 지역 문화탐방, 환경시설 견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우호 증진과 환경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일차인 30일에 진행된 한중일 환경 포럼은 각 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방안을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전북도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 현황을 주제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여건 분석, 부문별 세부 감축 사업 등을 소개하고, 중국은 장쑤성의 탄소

중립정책 및 경과와 저탄소 중립 정책사업, 분야별 중점분야 조치, 탄소중립 시계 등을 발표하며, 일본은 이시카와현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방안과 친환경 캠페인, 분야별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해 상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 장남정 탄소중립센터장, 중국 장쑤성 환경청의 추이 형후 법집행감독국장 등, 환경보호그룹 생태환경모니터링 기업관계자, 일본 이시카와현 탄소중립추진과 오카 히데오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시설 견학일정으로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증기를 활용하여 주민 편의 시설인 쥘빌과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완주군에 위치한 엔프토크 기업에서는 연료나 식물성 잔재물을 연소해 스티프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지역문화탐방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고창 운곡탐사트레킹을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김재훈 기자

내달 1~3일 전북도청서 축산물 소비촉진 할인판매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생산자 협회(한우, 한돈, 낙농)와 함께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도청 서편광장에서 도내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축산물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료값 상승 등 사육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도내 생산 축산물(한우, 한돈, 가공품)의 우수한 맛과 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산자 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생산자단체 등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우·한돈은 평균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의 최대 30%, 축산물 가공품은 10~6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추석 선물세트 판매도 병행한다.

또한 우유(K-milk) 무료나눔과 지난해 폐업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도내 한 토키업인 푸르밀 정성화를 위한 신제품 나눔행사, 한우시식회, 한우사진전, 축산물이력서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육군부사관학교, 통합 입교식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익산시와 육군부사관학교 학교장 정정숙은 30일 실내체육관에서 부사관 후보생 및 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4기 통합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하는 후보생은 총 244명으로 행사는 부교납과 소통의 시간·군악대 공연·익산시 풍물놀이단 공연 등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후보생 입교식과 △교역부장 인사말 △부교납 은혜 제창 △부교납께 큰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부터 익산시 음식점 및 관광 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관에서 처음 개최한 통합입교식은 이번 50차 행사를 시작으로 기수별 1,000명~3,000여명의 후보생 및 가족들의 방문이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익산이재준 기자

→ 1면에 이어... ‘또 바꿔?’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전북도 ‘당황’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때마다 조금씩 수정되긴 했지만 이때 확정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이번 기본계획 재정립은 그동안의 틀을 모두 백지화시킬 수 있다. 새롭게 기본계획을 정립하는데만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새만금 사업은 모두 중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되어 온 새만금에 적용된 SOC는 모두 이때 기본계획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다.

윤 정부가 새만금 SOC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대대적인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당초 목적인 농업부지로 이용

하는 방안으로 되돌아가는 시대에 흐름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북도는 우려의 시각을 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면서 “다만 최근 논란이 되듯 예비타당성을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군산대 2학기 원광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가목에 맞설이 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목과 민생(노량과선) 학원 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승변학회 전국회장
 - 전주세인트모니카가톨릭대학 교수 역임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1년간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EBS 출연 및 MC 역임
 - 스포츠지 일일리포트
 - 워킹코치
 - 심리상담사
 - 실리상담사
 - 스피치·시 낭송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마스터키”, “나를 세운 말,말,말”
 - “스피치노하우” 등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